

SGI-USA
ORGANIZATION MEMO

DATE: FEBRUARY 27, 2020

MEMO: 2020-ORG-023



DISTRIBUTE TO: Region through Territory Leaders, Zone and Territory Offices
FROM: SGI-USA Organization Center
SUBJECT: **Mrs. Kaneko Ikeda's 2020 Message (4 Languages)**

Congratulations on SGI-USA Women's Day!

We have received translations of Mrs. Ikeda's message in Chinese, Japanese, Korean and Spanish.

Please see attached.

The English message was published in the February 14 issue of the *World Tribune*.

Thank you very much!

**Mrs. Kaneko Ikeda's 2020 Message to the Women and Young Women.
(Chinese)**

夫人書面致詞

年復一年，與全世界創價家族同心一致，增添廣布與人生的年輪，刻劃「今生人界之懷思」，是多麼幸福的一件事。

託各位的福，外子日益健朗，在今年正月迎來九十二歲生日。

原本體弱多病的他，三十二歲就任會長以來，一週年、二週年、三週年，年年抱著「啊，又活了下來」的心情奔走至今。今年是就任六十週年，依然健康地指揮「令法久住」，這不外乎妙法「更賜壽命」的偉大功力，更由於世界各地同志的真心祈求，一家人總是這麼認為，由衷感激。

每天早晨，心裡感謝著派送《聖教新聞》的「無冕之友」，翻開報紙，世界廣布醒目發展的景象躍然紙上，外子也稱讚「真了不起！好高興！」

外子有時會在手邊的《聖教新聞》寫幾句鼓勵的話，送給同志們。

大約十年前，他在報導 SGI 的發展受到各界信賴的版面上寫給我：「世界第一／廣布與和平／大勝利！師匠戶田先生會多麼高興啊！」

去年當我們來到剛落成的宏偉的世界聖教會館時，他一再提起多

麼希望讓戶田先生看看。

佛堂所在的「言論會館」，在須彌壇基底埋存了五大洲的石頭以及世界各地的機關報章雜誌。我與外子祈念再三，希望從這座城堡散發明亮的「廣宣流布」即「世界和平」的言論之光。

去年底得知外子在海外出版的書籍已翻譯成四十八種語言，超過兩千冊。

對於幕後不辭勞苦，致力於翻譯、出版的人員，感激不盡。

一如小說《新人間革命》中所述，在與湯因比博士對談的日子裡，英國的同志們拼命將每天的談話錄音記錄成文字。

非常高興聽到當時擔任這項工作的年輕女性，以這段共戰的歷史為豪，身為歐洲廣布領導而活躍的近況。

這本對話錄發行四十五週年，創價世界市民已繼承了湯因比博士託付外子「結合人類的和平對話」的心願。

我們朗朗唱題的聲音，認真誠懇與他人分享佛法的聲音，會掀起多少幸福與和平的波浪啊。

日蓮大聖人告訴遠在佐渡的嚴酷環境中拼命鼓勵、毅然守護同志

的千日女居士：「持有法華經之獅子王，此女人不畏一切地獄、餓鬼、畜生等之百獸。」

本佛約定，不論遭受再大的考驗，受持妙法的女性及其周遭絕對不可能不幸，教導無論如何都要貫徹「堅毅不屈的信心」。

「堅毅不屈的信心」是從題目開始，無論如何都要抱著「勢必突破困境」的誓願，向御本尊全心全意地祈求到底。

誓願的題目會湧現不畏苦難狂瀾、乘風破浪的勇氣，產生變毒為藥，一一往好的方向轉變，生動創造價值的智慧。

而且會渾身充滿力量，鼓勵陷於同樣苦惱的朋友，讓自他達到幸福境界。

化「宿命」為「使命」的「人間革命」勝利名劇相應而生。

現在日本的婦人部將五十歲以下的部員統稱為「青春白百合世代」，聚焦在這群「建構新時代的主角」。

那是婦女面對人生種種變化與考驗的重要時期，向來外子也悉心給予鼓勵。

1962年1月25日是長達四年半的大阪事件贏得無罪判決的日子。

事後回到關西本部的外子，與同甘共苦的同志們一起走向佛間。

看到一位與病魔搏鬥的關西年輕的婦人部正在為勝訴而祈求，外子慰勞她說：「已經沒問題了」，請她帶領大家唱題。

於是眾人為她的痊癒及無限開啟全體同志的正義與幸福的「常勝之門」，強盛祈求。

不久之後她就生氣蓬勃地展現「妙者，蘇生之義」的實證，歷經五十八年的現在，依然身為後輩的典範，神清氣爽地參加學會活動。

不論何時何地，創價家族總是珍視「每個人」，培養「青年人的力量」，和睦明朗地在廣宣流布與立正安國的大道上前進。

今年日本的新年勤行會放映了美國、印度、歐洲會員滿面笑容的影像與歌聲。此外，每天在《聖教新聞》都看得到世界各地會員的笑容。

現在也經常聽到許多友人或有識之士對於世界各地都有學會會員的燦爛笑容，表示欽佩。

創價的笑容是希望的光芒，發揮各自原本最尊貴、最明朗的佛生命。

在「前進、人才年」我們更要出聲鼓勵，讓「櫻梅桃李」的人華笑容愈益盛開，照亮地球民族共生的和平未來。

深摯祈念在各自誓願的國土成為廣布太陽的婦人部、女子部健康、平安、幸福。以上是我的賀詞。

メッセージ

一年また一年、全世界の創価家族の皆さまと心を一つに広布と人生の年輪を重ね、「今生人界の思出」を刻めることは、なんと幸せなことでしょうか。

おかげさまで、主人はますます元気で、このお正月、九十二歳の誕生日を迎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

もともと病弱で、三十二歳で会長に就任してより、一周年、また二周年、三周年と「ああ命があつたのか」という思いで走り続けてきた年月です。就任六十周年を迎える本年も、健康で「令法久住」へ指揮を執れることは、妙法の「更賜寿命」の大功力にほかなりません。何よりも世界中の同志の真心の祈りあればこそ、家族でいつも語らい、心より感謝しています。

毎朝、聖教新聞を配達して下さる「無冠の友」の方々に深謝しつつ紙面を開きますと、世界広布の目覚ましい前進の様子が躍動していて、主人も「すごいね！うれしいね！」と讚えております。

主人は折々に、手にした聖教新聞に励ましの言葉を書き添えて、同志の方々に贈ってきました。

十年ほど前、私にも書いてくれたことがあります。

私たちS G Iの前進へ社会から寄せられる信頼がつづられた紙面に――

「世界一 広布と平和 大勝利かな！」

師 戸田先生のお喜びはいかばかりでありましょうか！」と記されてありました。

昨年、立派な世界聖教会館が完成して訪問した際も、「戸田先生にお見せしたかったね」と何度も語っていました。

礼拝室の「言論会館」の須弥壇しゆみだん底部きていぶには、五大陸の石とともに世界の機関紙・誌しが納めおさられております。この城から、「広宣流布」即「世界平和」の言論の光が明るく広がるように、主人と祈りを重ねました。

昨年末、主人の海外著作が、四十八言語で二千点を超えたと報告を頂きました。

陰の労苦を惜しまず翻訳や出版等に尽力くださっている方々に、感謝は尽きません。

小説『新・人間革命』に書き留めとどられているように、トインビー博士との対談の時は、その日の語らいが録音されたテープの文字起こしなど、イギリスの同志の方々が懸命けんめいに支えてくださいました。

当時、この労作業を担ってくださいだった若きスタッフ

の女性が共戦きょうせんの歴史を誇りとし、欧州広布のリーダーとして活躍きんきやうされている近況も、うれしい限りです。

対談集の発刊から四十五周年、トインビー博士が願たくい、主人に託された「人類を結ぶ平和への対話」は、創価の世界市民たちに受け継がれています。

私たちが朗々ろうろうと唱える題目の声、そして真剣に誠実に仏法を語る声は、どれほど幸さいちと平和の波動を起こしていくことでしょうか。

日蓮大聖人は、遠く離れた佐渡の厳しい環境の中で、必死で同志を励まし、毅然と守っていた千日せんにちあま尼に仰せになられました。

「法華経の師子王たもを持つ女人は一切の地獄・餓鬼・畜生等の百獸ひやくじゆうに恐るる事なし」

御本仏は、いかなる試練が襲いかかってこようと、妙法を受持した女性と、その眷属けんぞくが絶対に不幸になどなるわけがないと約束され、何があっても「負けない信心」を教えてくださいます。

「負けない信心」とは、題目から始めることです。何があるうと、「必ず打た開かいしてみせます」という誓いを込めて、御本尊に祈り抜き、祈り切ることです。

誓願の題目からは、苦難くなんの荒波あはなみにも怯ひるまず、波乗り

のように挑んでいく勇氣が湧いてきます。一つ一つを良い方向へ変毒為薬し、生き生きと価値創造していく智慧が生まれます。

そして、同じように悩み苦しむ友を励まし、自他共に幸福の境涯を開いていく力が満ちあふれてくるのではないでしようか。

「宿命」を「使命」に転ずる「人間革命」の勝利の劇が、ここにあります。

日本の婦人部では、新たに四十代までの方々を「ヤング白ゆり世代」と総称し、「新時代を築く主役」として一段と光を当てています。

さまざまな人生の変化や試練に直面する大事な年代であり、主人もこまやかに激励を送ってきました。

一九六二年の一月二十五日、四年半に及んだ大阪事件の裁判で、無罪判決を勝ち取った日のことです。

関西本部に戻った主人は、苦楽を分かち合ってきた同志の方々と一緒に仏間に向かいました。

その中に、病魔と闘いつつ裁判の勝利を祈ってくれていた若い関西婦人部の友を見つけると、主人は「もう大丈夫だよ！」と声をかけてねぎらい、唱題の導師をするように促しました。

そして、その平癒とともに、全同志の正義と幸福の「常勝の門」が無限に開かれていくことを、皆で強く祈念したのです。

まもなく彼女は、「妙とは蘇生の義なり」との実証をはつらつと示してくれました。五十八年を経た今も、後輩の模範として、すがすがしく学会活動に励まれています。

いつ、いずこでも、「一人」を大切に、「若い力」を伸ばしながら、仲良く朗らかに広宣流布と立正安国の大道を前進していくのが、私たち創価家族です。

今年の日本の新年勤行会では、アメリカ、インド、ヨーロッパの同志の笑顔満開の映像と歌声が披露されました。また、聖教新聞に世界の友の笑顔が掲載されない日はありません。

折あるごとに、友人や識者の方々から「学会員の素晴らしい笑顔は世界中に広がっていますね」との感銘の声が、たくさん寄せられる時代に入りました。

創価の笑顔は、最も尊く最も明るい仏の生命を、自分らしく、ありのままに發揮していく希望の光です。

「前進・人材の年」、私たちは、ますます励ましの声を響かせ、「桜梅桃李」の笑顔の人華を咲かせ広げ

ながら、地球民族が共に生きゆく平和の未来を照らしていききたいと思えます。

それぞれの誓願の国土で広布の太陽と輝く、婦人部・女子部の皆さま方の健康と無事安穩、ご多幸を深く祈りつつ、私のメッセージ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Mrs. Kaneko Ikeda's 2020 Message to the Women and Young Women. (Korean)

이케다 가네코 SGI 명예여성부장 메시지

한해 또 한해, 전 세계 창가가족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광포와 인생의 연륜을 쌓아 “금생 인계(人界)의 추억”(어서 467쪽)을 새길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덕분에 남편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92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본디 병약해서 32세에 회장에 취임한 뒤 1주년 또 2주년, 3주년 ‘아, 목숨이 붙어 있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달려온 세월입니다.

취임 60주년을 맞는 올해도 건강하게 ‘영법구주(令法久住)’를 향해 지휘할 수 있는 일은 묘법(妙法)의 ‘갱사수명(更賜壽命)’이라는 크나큰 공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 동지의 진심 어린 기원 덕분이라고 가족끼리 늘 대화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세이교신문을 배달해주시는 ‘무관(無冠)의 벗’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하며 지면을 펼치면 눈부실 정도로 전진한 세계광포의 모습이 약동하고 있어 남편도 ‘굉장하구나! 기쁘구나!’ 하고 상찬합니다.

남편은 이따금 손에 든 세이교신문에 격려의 말을 써서 동지들에게 보냅니다. 10년 전쯤에 내게도 써준 말이 있습니다.

우리 SGI의 전진에 사회에서 보내주는 신뢰가 씩어 있는 지면에 “세계 제일 광포와 평화 대승리로구나! 스승 도다(戸田)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써주었습니다.

지난해 훌륭한 세계세이교회관이 완공되어 방문했을 때도 ‘도다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대강당인 ‘언론회관’ 수미단 기저부에는 오대양 육대주의 돌과 함께 세계의 자매 신문과 잡지가 묻혀 있습니다. 이 성(城)에서 ‘광선유포’ 즉 ‘세계평화’라는 언론의 빛이 밝게 퍼지기를 남편과 함께 거듭 기원했습니다.

지난해 말, 남편의 해외 저작이 48개 언어로 2000점을 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음지에서 고생을 아끼지 않고 번역과 출판 등에 힘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소설 ‘신·인간혁명’에 씌어 있듯이 토인비 박사와 대담할 때는 그날의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를 듣고 내용을 정리하는 영국의 동지들이 열심히 뒷받침하셨습니다.

당시 이 수고스러운 작업을 맡아준 젊은 여성 스태프가 스승과 함께 투쟁한 역사를 금지로 여기고 유럽광포의 리더로 활약하고 계신다는 근황도 기쁠 따름입니다.

대담집 발간 45주년, 토인비 박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의탁하신 ‘인류를 잇는 평화를 위한 대화’는 창가(創價)의 세계시민들에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낭랑하게 부르는 제목 소리 그리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불법(佛法)을 말하는 목소리는 얼마나 크게 행복과 평화의 파동을 일으킬까요.

니치렌(日蓮) 대성인은 멀리 떨어진 사도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필사적으로 동지를 격려하고 의연히 지키는 쉰니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法華經)의 사자왕(師子王)을 갖는 여인은 일체의 지옥, 아귀, 축생 등의 백수(百獸)에게 두려워하는 일이 없다.”(어서 1316쪽)

어본불(御本佛)은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묘법을 수지한 여성과 그 권속이 절대로 불행할 리 없

다고 약속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신심’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지지 않는 신심’은 제목에서 시작하는 신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타개하겠다’는 서원을 담아 어본존을 향해 곳곳이 끝까지 기원하는 신심입니다.

서원의 제목에서는 고난의 거센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파도타기처럼 도전하는 용기가 솟아납니다. 하나하나를 좋은 방향으로 변독위약하고 활기차게 가치를 창조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똑같이 괴로워하는 벗을 격려하고 자타 함께 행복의 경애를 여는 힘이 넘쳐흐르지 않을까요.

‘속명’을 ‘사명’으로 바꾸는 ‘인간혁명’의 승리 드라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부인부에서는 40대까지의 분들을 새롭게 ‘영(young) 백합세대’라고 총칭해 ‘신시대를 구축하는 주역’으로서 더욱더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변화나 시련에 맞닥뜨리는 중요한 세대로 남편도 소상히 격려를 보냈습니다.

1962년 1월 25일, 4년 반에 걸친 오사카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쟁취한 날의 일입니다.

간사이본부로 돌아온 남편은 고락을 함께 나눈 동지들과 함께 창제실로 향했습니다.

그중에 병마와 싸우며 재판의 승리를 기원해준 간사이의 젊은 부인부원을 발견하고 남편은 ‘이제 괜찮다!’는 말을 걸어 위로한 뒤 창제의 도사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는 것은 물론 전 동지의 정의와 행복의 ‘상승(常勝)의 문’이 무한히 열리기를 다 함께 강하게 기원했습니다.

머지않아 그 부인부원은 “묘(妙)란 소생의 의(義)이고”(어서 947쪽)라는 실증을 발랄하게 보여주었습니다.

58년이 흐른 지금도 후배의 모범으로서 상쾌하게 학회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젊은 힘’을 기르면서 사이좋게 명랑하게 광선유포와 입정안국의 대도(大道)를 전진하는 존재가 우리 창가가족입니다.

올해 신년근행회에서는 미국, 인도, 유럽의 동지가 환하게 웃으며 노래하는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또 세이교신문에 전 세계 벗의 웃는 얼굴이 게재되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인이나 지성들이 ‘학회원의 멋진 웃음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는 감명 깊은 소리를 보내오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창가의 밝은 얼굴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밝은 부처의 생명을 자기답게 있는 그대로 발휘하는 희망의 빛입니다.

‘전진·인재의 해’, 우리는 더욱더 격려의 소리를 울려 ‘앵매도리(櫻梅桃李)’의 환한 웃음꽃 피는 인화를 피우고 넓혀 지구민족이 함께 살아갈 평화로운 미래를 비추고자 합니다.

저마다 서원의 국토에서 광포의 태양으로 빛나는 부인부, 여자부 여러분의 건강과 무사안온 그리고 행복을 깊이 기원하며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가네코 이케다

SGI 명예여성부장

**Mrs. Kaneko Ikeda's 2020 Message to the Women and Young Women.
(Spanish)**

**Mensaje de la señora Kaneko Ikeda para la División Juvenil Femenina y la
División Femenina**

Me siento realmente afortunada de poder dedicar mi vida y mi trabajo al *kosen-rufu* año tras año al lado de ustedes, las integrantes de nuestra familia Soka en todo el orbe, y de crear juntas maravillosos recuerdos de nuestra «existencia en este mundo humano».¹

Es una alegría informarles que el presidente Ikeda, quien acaba de cumplir noventa y dos años a principios de este año, se encuentra bien de salud y con excelente ánimo.

Mi esposo, en su adolescencia y juventud, vivió aquejado por la enfermedad. Desde que asumió la tercera presidencia de la Soka Gakkai a los treinta y dos años (el 3 de mayo de 1960), hemos celebrado cada cumpleaños suyo profundamente agradecidos de que hubiera sobrevivido un año más, para continuar su labor en bien del *kosen-rufu*. Hoy, sesenta años después, sigue marchando a la vanguardia con el fin de asegurar la eterna transmisión de la Ley. Todo esto se debe al gran beneficio de prolongar la vida mediante la fe en la Ley Mística. Y, más que nada, a las sinceras oraciones de los miembros de todo el mundo. Es algo de lo que siempre hablamos en nuestra familia y que motiva nuestra inmensa gratitud.

Cada vez que leo el *Seikyo Shimbun*, siento un agradecimiento infinito por quienes, cada mañana, reparten el diario, cuyas páginas abundan en fotos y artículos que testimonian el desarrollo dinámico del *kosen-rufu* mundial.

Esto, a mi esposo y a mí, nos colma de felicidad. En muchas ocasiones, a lo largo de los años, él ha escrito palabras de aliento sobre las páginas del diario y se las ha obsequiado a los miembros.

Hace una década, sobre una plana que describía la confianza que nuestro movimiento estaba adquiriendo en la sociedad, escribió y me regaló estos versos: «La mejor organización del mundo / para establecer el *kosen-rufu* y la paz. / ¡Qué tremenda victoria! / ¡Sé que nuestro maestro, Toda Sensei, estaría radiante de felicidad!»

Cuando visitamos el magnífico Centro Mundial Seikyo, inaugurado el año pasado, varias veces él comentó cuánto hubiese querido que el señor Toda estuviese allí para verlo.

En la base del altar budista instalado en la nueva sala principal del Gohonzon, llamada Salón Genron, se guardaron piedras de países de todo el orbe. Y también se preservaron ejemplares de diarios y revistas publicados por las organizaciones de la SGI del mundo. Mientras estábamos allí, mi esposo y yo oramos para que el

¹ Preguntas y respuestas referidas a abrazar el «Sutra del loto», en *Los escritos de Nichiren Daishonin (END)*, Tokio: Soka Gakkai, 2008, pág. 68.

luminoso mensaje de la Soka Gakkai por el *kosen-rufu* —es decir, la paz mundial— brille intensamente desde este grandioso baluarte de la pluma.

A fines del año pasado, recibimos la noticia de que las obras de mi esposo publicadas en el exterior y traducidas a cuarenta y ocho idiomas ya superan las dos mil. Tenemos una enorme deuda de agradecimiento con quienes han trabajado sin escatimar esfuerzos en la traducción, edición e impresión de estos títulos.

En su novela *La nueva revolución humana*, mi esposo narra el valioso papel que desempeñaron los miembros del Reino Unido en su diálogo con el historiador británico Arnold J. Toynbee (1889-1975), quienes, por ejemplo, se ocuparon de transcribir cada una de las sesiones de diálogo grabadas en cintas magnetofónicas. Con gran felicidad, leí un informe reciente de una líder de la SGI de Europa, donde dice que su gran orgullo es haber sido parte de esa historia.

En vísperas de celebrar el 45.º aniversario de la publicación de ese diálogo, *Elige la vida*, nuestros ciudadanos globales de la Soka están llevando a cabo los «diálogos por la paz para unir a la humanidad» que fueron el deseo del doctor Toynbee y la misión que él le confió a mi marido.

Nuestras voces que entonan Nam-myoho-renge-kyo vigorosamente y transmiten el budismo a la gente con sinceridad están creando un interminable oleaje de paz y de felicidad.

En una carta dirigida a la monja laica Sennichi, quien alentaba y protegía sin cesar a sus camaradas de fe en las inhóspitas condiciones de la isla de Sado, Nichiren Daishonin le escribe: «La mujer que abraza al rey león del *Sutra del loto* jamás teme a ninguna de las bestias del infierno ni de los reinos de las entidades hambrientas o los animales».² Le promete que la mujer que cree en la Ley Mística, así como todos sus familiares y seres queridos, jamás serán infelices, por muchas dificultades que surjan. Y le enseña a tener fe invencible frente a cualquier desafío.

Tener una fe invencible comienza por entonar Nam-myoho-renge-kyo, por orar al Gohonzon con absoluta sinceridad y convicción, decididas a atravesar todos los obstáculos de manera infalible.

La práctica de Nam-myoho-renge-kyo imbuida de un profundo juramento genera el coraje de remontar las olas más terribles de la adversidad. Produce la sabiduría de convertir el veneno en remedio, y de mover todas las cosas en dirección positiva, hacia una vibrante creación de valor. Y activa en nuestro interior una fuerza exuberante, que nos permite alentar a nuestros amigos que sufren y hacer posible la felicidad, para nosotros y para los demás.

Esta es la saga triunfal de la revolución humana y de transformar el karma en misión.

² *El tambor en el Portal del Trueno*, en *END*, pág. 993.

En estos momentos, la División Femenina del Japón está haciendo foco en las mujeres menores de cincuenta años como protagonistas en la construcción de la nueva época, a quienes se ha denominado Generación Joven Lirio Blanco.³

Este es un importante período en la vida de la mujer, cuando se concentran muchos de sus mayores cambios y desafíos. A lo largo de todos estos años, mi esposo ha apoyado decididamente a las mujeres de esta generación, con su aliento más sincero.

El 25 de enero de 1962 fue el día del fallo judicial que puso fin al proceso relacionado con el incidente de Osaka.⁴ Después de cuatro años y medio, mi esposo fue sobreseído de todos los cargos. Al volver a la sede central de la Soka Gakkai de Kansai, fue directo hacia la sala del Gohonzon junto con los miembros que habían compartido sus luchas y sus alegrías. Allí, vio a una joven señora de la División Femenina de Kansai que, aun batallando contra su propia enfermedad, también había orado fervorosamente por la victoria del juicio. «¡Ahora todo está bien!», le dijo y le pidió que ella se sentara al frente a dirigir la recitación del *daimoku*.

Todos oraron por su recuperación y por la victoria resonante de los miembros, en su lucha por la justicia y la felicidad.

Poco después, esta joven señora se curó, dando una espléndida prueba real del principio de que «*Myo* significa “revivir”». ⁵ Hoy, cincuenta y ocho años después, sigue participando enérgicamente en las actividades de la Soka Gakkai y es un inspirador ejemplo para todos.

El corazón de la familia Soka es atesorar a cada individuo y forjar el potencial de los jóvenes, mientras avanzamos en armonía y con actitud positiva por el gran camino que nos conducirá al logro del *kosen-rufu*, que es la paz y la felicidad para todo el género humano.

En las reuniones de *gongyo* de Año Nuevo celebradas este año en todo el Japón, se mostró un vídeo muy alentador donde los camaradas de los Estados Unidos, la India y Europa, muy felices, avanzaban y cantaban juntos. El *Seikyo Shimbun* también publica a diario fotos de miembros sonrientes de diversos países.

³ En la reunión de la sede central para responsables de la Soka Gakkai celebrada el 18 de noviembre de 2019, la líder de la División Femenina anunció que sus integrantes de hasta cincuenta años se denominarían Generación Joven Lirio Blanco. El «lirio blanco» es uno de los símbolos de la División Femenina. En conjunción con esta novedad, el grupo de Jóvenes Madres del Japón se ha disuelto y ha quedado incorporado al nuevo grupo más amplio.

⁴ Incidente de Osaka: Episodio en el cual el presidente de la SGI, por entonces jefe de plantel de la División de Jóvenes, fue arrestado e injustamente acusado de violar la ley electoral en Osaka, en 1957, durante unas elecciones para legisladores municipales. El juicio, que duró casi cinco años, terminó con la absolución total del presidente Ikeda, quien fue sobreseído de todos los cargos.

⁵ *El daimoku del «Sutra del loto»*, en *END*, pág. 156.

Hoy, como destacan amigos y personas lúcidas en todas partes, no hay lugar del mundo donde no brillen los rostros sonrientes de los miembros de la SGI.

Las sonrisas cálidas de nuestros compañeros, verdaderos faros de esperanza, muestran que todos pueden revelar la nobleza y el brillo de la budeidad, cada uno a su propio modo.

En este «Año del avance y de los valores humanos», usemos la voz más que nunca para alentar a los demás y crear un jardín cada vez más exuberante de sonrientes «flores humanas», todas únicas y hermosas. Iluminemos el camino hacia un futuro de paz, donde las personas puedan vivir en armonía.

Sepan que estoy orando sinceramente por la salud, la seguridad y la dicha de todas las miembros de la División Juvenil Femenina y de la División Femenina, que brillan como radiantes soles del *kosen-rufu* en los lugares donde han elegido cumplir su juramento.

Kaneko Ikeda
Titular honoraria de la
División Femenina de la SGI